

#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목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일시/장소	<b>2020년 9월 28일 (월) 10시 30분 / 국회앞</b>
주최/주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담당	운동본부 정재현(조직팀장 010-3782-1817), 정우준(기획팀장 010-9674-1247)

## 1. 취지

- 지난 9월 22일 09시 20분, 10만명의 시민·노동자 참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민·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시간입니다.
-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지만, 태안화력발전소 노동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입장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원하청간 업무지시 불통이 원인이었습니다. 3명이 사망한 부산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사고에 검찰은 원청 포스코에 겨우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책임이 있는 곳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퇴근하지 못하는 한해 2,400명의 노동자와 재난참사 시민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위험한 일터와 사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한 <국민동의청원>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근절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2. 기자회견 프로그램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진행 순서

- 일정 : 2020년 9월 28일 (월)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발언 1  
진은영 | 국민동의청원 참여 시민 1인
- 발언 2  
김경희 | 국민동의청원 참여 노동자 1인
- 발언 3  
김미숙 | 김용균재단 이사장
- 운동본부 입장발표  
허영주 | 스텔라데이지호 피해가족  
박석운 |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 시민, 노동자, 산재재난 피해가족이 함께 하는 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자회견은 적정 인원으로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께서도 취재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NO MORE DEATH